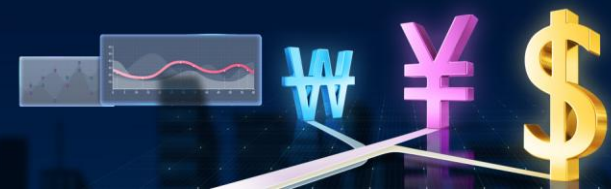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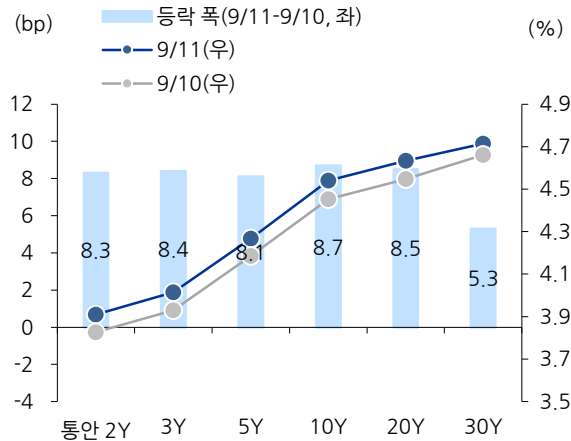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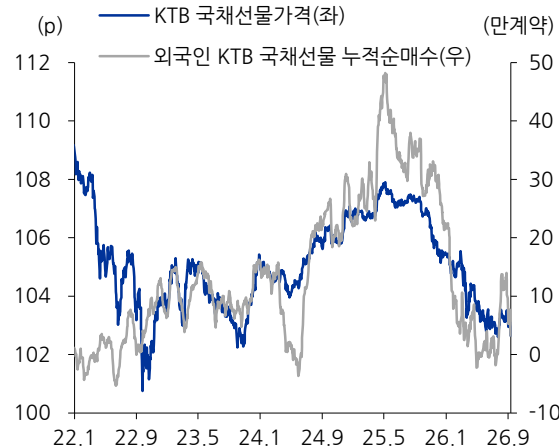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9/1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4.014%	8.4	13.0	106.1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540%	8.7	18.0	115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52.6	52.3	47.6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65	-30.0	-52.0	-279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3.68	-100.0	-176.0	-924.0
	미국채 2년물	4.627%	4.0	28.8	115.5
	미국채 10년물	4.968%	0.5	20.0	80.0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4.2	37.7	43.0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515%	0.7	16.6	66.0
	호주국채 10년물	5.369%	11.9	21.9	61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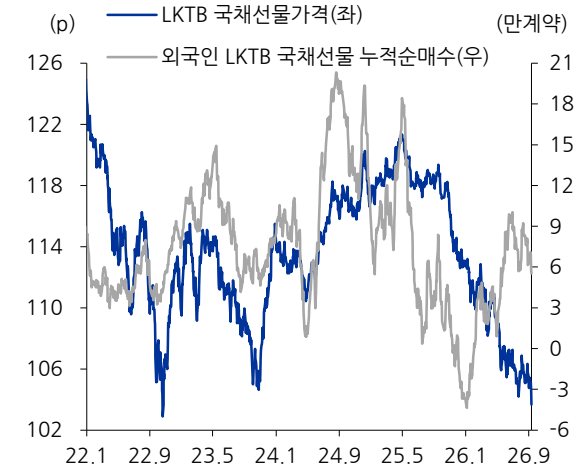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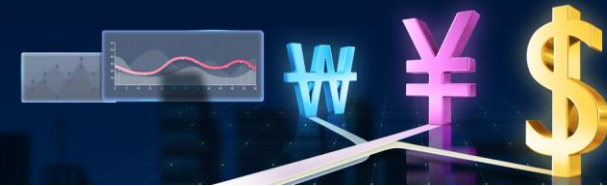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급격한 약세 마감. 국제유가 영향 지속,
- 개장 초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세로 금리 상승 출발. 최근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등 대외 금리 상승, 9월 FOMC 인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음.
- 특별한 국내 재료 없어 오후 흐름도 유사했음. 오후 들어 장중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투자심리 훼손이 워낙 강해 금리 하락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이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. CPI 발표 후 9월 인상 우려 추가 반영.
- 미국 8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근원 CPI의 전월비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리 전구간 급등. 10년물 장중 한 때 5% 돌파. 9월 FOMC 인상 가능성이 80% 이상 반영된 영향.
-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가 동서 송유관 가동을 예방적 차원에서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미-이란 우려는 지속. 다행히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영향 없었음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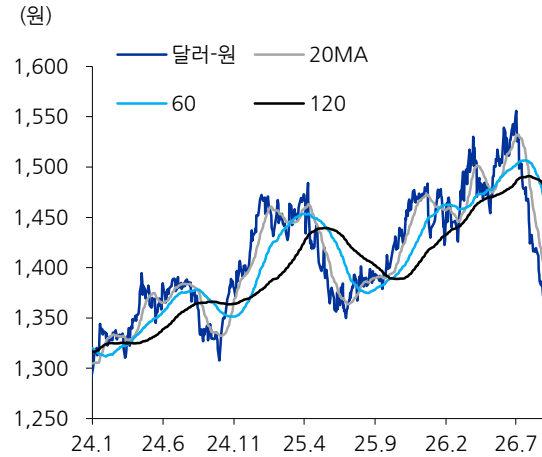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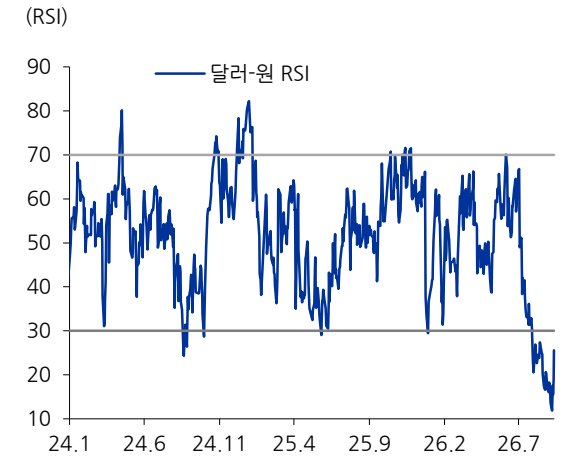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9/11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45.90	0.5%	-0.3%	-6.5%
	달러지수	99.10	0.0%	-0.1%	0.8%
	달러/유로	1.16	-0.1%	-0.1%	-1.3%
	위안/달러(역외)	6.71	-0.1%	0.0%	-3.9%
	엔/달러	153.57	-0.5%	-1.7%	-2.0%
	달러/파운드	1.35	0.1%	0.1%	0.5%
	헤알/달러	5.12	0.3%	-0.2%	-7.2%
상품	WTI 근월물(\$)	100.05	-2.4%	9.6%	74.2%
	금 현물(\$)	4,348.73	0.7%	-1.8%	0.7%
	비트코인(\$)	77,385	0.2%	-5.7%	-11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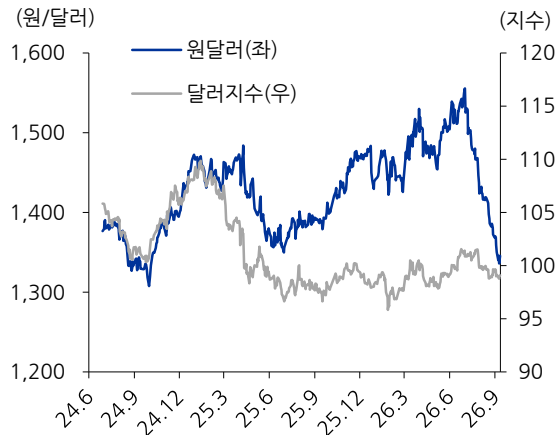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중동 우려 지속되며 +6.70원 오른 1,345.90원 마감(야간 1,344.10원).
- 중동 군사충돌 이어지며 WTI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,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. 외국인은 코스피를 이탈 연속 2조원대 순매도.
- 원달러 환율은 주간 -4.5원 하락. 수출업체 매도, 엔화 강세가 환율 하락을 주도했으나 국민연금 환헤지 중단 보도, 중동 리스크가 하단 지지하며 전주(-22.1원) 대비 낙폭은 축소.
- 달러-원이 고점 대비 -13.5%(-210원)가량 하락한 만큼 급격한 조정은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을 가능성. 다만 엔화 강세 흐름과 자금유입 압력 고려할 때 연말~내년 저점은 더 낮게 열어둘 필요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9월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며 강보합(DXY +0.0%).
- 美 8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비 +0.4% 높아져 예상 부합했으나 근원 CPI가 +0.3% 상승해 예상(+0.2%) 상회.
- 8월 CPI 발표 이후 시장이 반영하는 9월 연준 인상 가능성은 90% 가까이 상승(CME fedwatch, 9/12일). 美 국채금리는 단기물 중심 상승해 베어 플래트닝(2년물: +4.0bp), 10년물 금리는 4.97% 도달.
- 연준 인상 베팅 강화는 달러 상승을 지지했으나,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달러인덱스 상승폭은 제한됨.
- 금주 美 FOMC(한국시간 9/17일 발표)와 BOJ 금정위(9/18일)에 주목.